

# 태종무열왕 김춘추[太宗武烈王 金春秋]

## 최초의 진골(眞骨) 왕 김춘추(金春秋), 백제를 무너뜨리다

603년(진평왕 25) ~ 661년(무열왕 8)



태종 무열왕 표준영정

/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

### 1 개요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김춘추(金春秋, 603~661)는 신라 제29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651년~661년이다. 그는 진골(眞骨) 신분으로 최초로 왕위에 올라 중대(中代) 왕실을 열었다. 가야 왕족 출신의 김유신(金庾信)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권력을 장악하여 왕위에 올랐고, 뛰어난 외교 역량을 발휘하여 나당(羅唐) 군사동맹(軍事同盟)을 체결함으로써 속적 백제(百濟)를 멸망시켰다. 삼국통일전쟁을 시작하여 통일신라 중대 전성기를 연 왕이라 할 수 있다.

### 2 신라 최고의 장수이자 충신 김유신(金庾信)을 얻다

김춘추(金春秋)는 603년(진평왕 25) 제25대 진지왕(眞智王, 재위 576~579)의 아들 김용춘(金龍春)과 제26대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632)의 딸 천명부인 김씨(天明夫人 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관련사료** 김춘추는 조부가 왕이었지만, 실제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멀리 있었다. 진지왕이 죽자 왕위는 아들인 김용춘이 아니라, 형의 아들인 백정(白淨-진평왕)에게 전해졌는데, 진평왕은 자신의 직계 후손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춘추 가계는 왕위 계승권을 갖지 못한 진골귀족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외모와 능력이 출중했고 야심도 있었던 김춘추는 여러 진골귀족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선덕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7) 재위 시에 상당한 정치적 지위에 오른다. **관련사료**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이자 신라 최고의 장수 김유신(金庾信)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두 사람의 인연은 629년(진평왕 51) 김춘추의 부친 김용춘이 김유신과 그 아버지 김서현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던 낭비성전투(娘臂城戰鬪)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된 것은 선덕여왕대에 김춘추가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 문희(文姬), 곧 문명부인(文明夫人)과 결혼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는 문무왕(文武王)을 비롯하여 신라를 이끌어나갔던 아들들이 태어났다